

어린이 책꽂이

▲십장생을 찾아서=할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손녀딸이 불로장생을 뜻하는 십장생을 하나 하나 모은다는 이야기



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던날, 주인공 손녀딸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학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 <창비·1만원>

▲누가 내 얼굴에 낙서했어=3~6세 아동들에게 바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내려온 창작 동화 시리즈. 집안 곳곳에 낙서를 하는 어린이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엄마와 아빠는 아이가 소중한 여기는 옷과 장난감 등에 낙서를 하게 되는데... <베이비북스·8천500원>

▲말썰쟁이 토마스에 생긴 일=모든 일에 반항적이고 말썰만 피우던 한 소년이 우연히 책을 읽게 되면서 독서의 즐거움에 빠지는 과정을 섬세하게 담았다.



책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권할 만 하다. <어린이 작가정신·7천500원>

▲해적의 인질 가브리엘=해적의 전성기였던 1720년을 배경으로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 가브리엘이 겪은 해적의 세계와 모험담을 생동감있게 그려



다. 강대국들의 식민지 대결과 노예제도를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조망했다. <크레용 하우스·9천원>

▲천둥 꼬마선녀 번개 꼬마선녀=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소설가 한강이 쓴 그림책.



호기심많은 천둥 꼬마선녀와 번개 꼬마선녀가 치렁치렁한 날개옷을 벗어던지고 세상밖으로 구경나오는 이야기가 흥미있게 펼쳐진다. <문학동네·9천800원>

양반 아닌 中人들 눈으로 본 조선시대 마이너리티들의 삶

문밖을 나서니... 최기숙 지음

신분제의 강고한 틀이 유지된 조선시대의 주류는 양반이었다. 당연히 천민이나 평민들은 말바닥 삶을 살면서도 괘시와 냉대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의 낮은 삶에 눈길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 상대중, 이덕무, 조희룡, 유재건, 김려, 홍양호, 김낙서, 백광현 등 문인들과 선비들이 그들이다.

대부분 서얼과 중인 출신이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넘어서 동병상련의 따뜻한 시선으로 비천하게 살아가는 절인, 장인, 궁녀, 기생, 방탕아, 백정들의 삶을 글로 남겼다.

'문밖을 나서니 갈 곳이 없구나'는 선비들이 쓴



이 책을 '기경춘전'이라는 글로 남겼다. "그는 몸과 마음을 영월 부사 이만회에게 허락한 뒤 절개를 굳게 지켜 두번 다시 그런 사람을 갖지 않았다. 이 부사의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온갖 폭행으로 경춘의 절의를 꺾으려 했으나 금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동병상련의 문인들이 서술한 절인·장인·기생·궁녀 이야기



조선의 중인,평민, 천민 등 기층민들은 양반들 처럼 타고난 지위나 명예는 갖지 못했으나, 학식이나 문장, 인품은 시대부 못지 않은 이들이었다. 사진 왼쪽은 김홍도의 '대장간', 오른쪽은 성철의 '투전'.

시민 시각서 본 헌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 다시 보기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음

대통령 임기를 현행 단일 5년제에서 연임 4년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금만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헌법 다시 보기'는 시민 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지현·윤영진)이 지난 2005년 1년 동안 진행한 세미나 '헌법 다시 보기'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이들의 논의는 개헌의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 공동체 발전의 차원에서 느껴지는 고민이 녹아 있다. 이들은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여겨지는 '87년 헌법'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꼬집은 뒤 그 대안을 모색한다. 법 전문가 뿐 아니라 평화·여성·환경·문화 등 각계 학자와 운동가들이 필자로 나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헌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창비·2만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노총각 형제의 좌충우돌 연애스토리

마미야 형제 에쿠니 가오리 지음

베스트셀러 '냉정과 열정 사이, Rosso'(소담출판사)의 일본 작가 에쿠니 가오리가 노총각 형제의 좌충우돌 연애스토리를 담은 장편소설 '마미야 형제'를 국내 번역·출간했다. 지난 2004년 작품으로 오는 8월 같은 제목의 영화가 국내에 개봉돼 더 관심을 끈다.

단란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키노부(35세)와 테츠노부(32세) 형제는 스포츠 중계와 독서, 영화 감상,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여자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서른이 넘도록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한 이들이 '애인 만들기' 작전에 몰입한다. 례게 파티와 불꽃놀이 파티에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여성을 초대하지만 여성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마미야 형제의 실수투성이 연애담을 통해 이상적 인간관계란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소담출판사·9천5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오주석 '한국의 미 특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로 흔히 단원이나 겸재, 혜원 등을 꼽는 이가 많지만, 그들의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여기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는 책이 있다. 오주석의 '한국의 미(美) 특강'(솔 펴냄)이 그것이다.

박물관이나 전시장에 가면 대개의 사람들은 작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선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 '휘' 둘러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작품을 정해진 방향에서 관람하는 게 옳을까? 그렇지 않다. 서양식 가로쓰기에 익숙한 우리는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감상하게 마련인데,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은 서양 화의 경우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선조들의 그림에는 전혀 맞지 않다. 우리 옛 그림의 주인공들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옮겨가며 그림을 그렸다. 시계 방향으로 걸으며 우리 옛 그림을 보았다면 거꾸로 감상할 셈.

저자의 눈을 따라가 보자. 김홍도의 '송하맹호도'를 두고 "세계 최고의 호랑이 그림"이라 "초국보급 걸작"이라 평하는 저자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하지만 이 호랑이 그림을 표구째 박물관에서 직접 보면 그렇게 체체해 보일 수 없다고 한다. 문제는 요란하게 만들어진 일본식 표구 때문. 품이 좋은 조선 사람이 현란한 일본식 기모노를 입은 꼴이라고 저자는 개탄한다.

옛 사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다



명쾌한 해석도 해석이지만, 문장이 유려하고 경쾌하다. 김홍도의 '씨름'에 대한 해석 일부를 보자.

"여러 세부중 편의상 눈만 보십시오. 가는 붓을 가지고 그저 살짜 놀려 준 것뿐인데 사람들마다 눈의 표정이 서로 다르고 개성까지 엿보입니다. 오른쪽 맨상투잡이 인물의 눈은 꼭 찢어 놓았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느낌이 있죠? 앞쪽의 갖방이는 좀 뚱뚱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눈빛이 특특해 보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미묘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다리를 내 뻗고 있군요. 다리가 저러서 펴고 있습니다. 역시 씨름판이 꽤 오래 되었다는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는 요소입니다."

그런 김홍도의 그림에 틀린 부분이 많다는 사실, '씨름'을 비롯한 김홍도의 많은 그림에서는 왼손·오른손이 바뀌 그려진 게 허다하다. 분명 팔은 오른 팔인데 왼손이 붙어있는가 하면, 왼손 대신 오른손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왜일까.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 성리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우리 옛 그림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주는 책. 우리 옛 초상화를 보면 대상 인물의 질병까지 알 수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저자가 국수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손'을 그리거나 조각에 있어서는 서양이 더 뛰어났다고 솔직히 인정하기도 하고, 김은호가 그린 눈개와 춘향의 얼굴은 김은호의 부인이라 밝히면서 정신이 빠진 전형적인 일본식 그림이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이 책을 쓰는 악마에게 바친다"고 했다. 진정한 붉은 악마라면 꼭 읽어야 할 책. 읽고나면 우리 옛 그림,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러나 '한국의 미 특강'을 내고 몇 년 후 저자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 미학사의 국본가 사라진 그 날, 나는 고삼 전기의 '귀거래도'를 떠올렸다.

이대홍 <시인>



Advertisement for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Chinese in 3 months)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a list of course details.

Advertisement for '동아외국어학원' (Dongah Foreign Language Academy) featuring a student's face and promotional text for a 11th anniversary event.